

# 젠슨 황 “앗, 실수... 최신 엔비디아 GPU에 삼성칩도 쓴다”

젠슨 황 엔비디아(사진) CEO가 자사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신제품에 삼성과 SK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황 CEO의 발언에 따른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황 CEO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RTX 50 시리즈에 삼성을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사의 제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은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새로운 GPU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다. 황 CEO는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의 GDDR7 제품이 탑재됐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제까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공급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마이크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과 SK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삼성과 SK에 그래픽 메모리가 없는 것으로

삼성·SK하이닉스 제품 안 쓰는 듯한 발언 하루 만에 정정  
최태원 회장과 사업 논의 소식에 하이닉스 주가 치솟아

안다”고 대답했다. 삼성전자와 SK는 모두 그래픽 메모리를 생산한다.

다만 황 CEO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 이유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이며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마이크론이 3위로 그 뒤를 쫓는 구도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큰 손이자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메모리 반

도체 시장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황 CEO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에 참여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정책은 대만을 주요 생산기지로서 삼고 있는 엔비디아에게도 영향을 크다. 또한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막힌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시대 최우수 기업으로 떠오르며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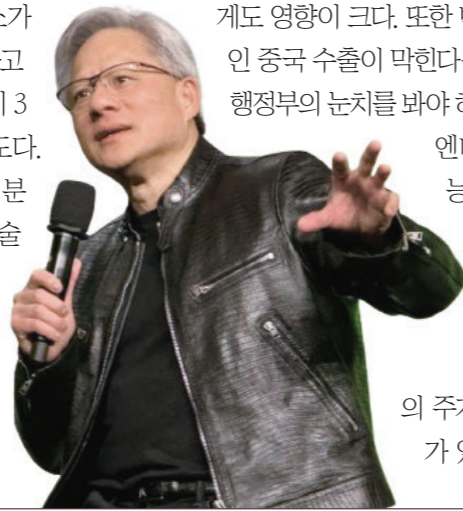
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황 CEO가 같은 날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이 폭락하며 황 CEO의 영향력이 다시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황 CEO가 발언을 정정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황 CEO의 발언에 따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7일 5만5400원에서 8일 5만7300원으로 올랐고 9일 오전 10시 기준 5만69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황 CEO의 발언에 따른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황 CEO와 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8일 19만5000원에서 9일 오전 9시 20만1000원으로 오르며 20만 원대를 넘어섰으며 오전 10시에는 20만4500원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홈플러스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자를 모색 중이다. 홈플러스

## 유통업계 불황에... 새주인 찾기 ‘난항’

2025년 슈퍼마켓 성장률 -0.7%

유통업계가 올해도 새 주인을 찾기에 나선다. 하지만 소비침체 장기화에 유통 환경이 변하고 이커머스와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소문이다.

올해는 정치 상황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까지 더 커지면서 매각작업에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자를 모색 중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10여 곳에 투자설명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아직 적절한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를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6~8배 정도인 6000억~8000억 원 수준으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치를 그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장 상황마저 녹록지 않다. 작년 12월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슈퍼마켓의 내년 성장률은 -0.7%다. 부정적 전망 비중은 58.7%였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33.3%)·온라인과의 경쟁심화(29.6%)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올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작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SK스퀘어도 11번가 매각을 재차 추진한다. SK스퀘어가 풀옵션을 포기한 뒤 재무적 투자자(FI) 주도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각 희망가를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낮췄음에도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로 완전히 재편된 상황에서 11번가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11번가 월간활성이용자(MAU) 등의 지표에서 쿠팡과 네이버의 바로 뒤를 잇고 있지만 격차가 아주 크다.

특히 작년에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또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됐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일부 사업의 매각을 추진한다. CJ제일제당은 그린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정보·미생물 발효 기술 등을 이용해 식품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다.

잠재 인수 후보에는 KKR·칼라일·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가 거론된다. 매각가는 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치열한 유통환경에서 인수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운 기자 nykim@skyedaily.com

## 최태원 SK회장 “엔비디아 요구 대응해 개발 속도 높인다”

젠슨 황과 사업 논의 내용·SK 차세대 AI 사업 비전 등 언급  
“다른 나라에 영원히 AI 의존 불가능... AI 인프라 구축해야”

최태원 SK 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찾아 전시관을 둘러보고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에서 이뤄진 사업 논의 내용을 언급하고 SK의 인공지능(AI) 사업 비전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만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상대의 요구가 더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를 선제적으로 높여 헤드 투 헤드로 서로 빨리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컴퓨팅을 잘 이해해 컴퓨팅 관련 설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서 만드는 회사라는 것이 황 CEO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SK의 AI 사업과 관

련해 데이터 센터 사업 추진의 비전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미래 사업을 위해 AI 데이터 센터 설루션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것이며 AI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는 이제 좋은 싫든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반도체·조선·철강 등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인터넷 환경이나 증기기관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변화를 만들고 있는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최전선에 서서 이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냐 따라갈 것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나에 따라 경제적 부침이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AI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어떤 형태로든 API(컴퓨터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간의 통신에 쓰이는 언어·메시지 형식)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AI 산업의 특화 없이 전반적인 성장을 추구하면 일개 기업이나 조직 단위 규모와 실력으로 세계 경쟁에서 이

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AI 인프라와 사람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AI를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AI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이 AI를 가지고 실험해 결과가 나오는 기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와 다른 곳에 영원히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동아보감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광고심의를필: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